

금호허리케인 첫 승...무등기 탈환 출발 좋다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개막

무등리그 16강전서 첨단고은미래의원 페가수스에 11-4 승

로즈스나이퍼스·무등산생태요양병원·금호허리케인·패밀리 1승

◇무등기 1주차 결과 (무등리그 16강전)

▲1경기(시간제한 승)

로즈스나이퍼스 3 8 0 0 1 0 - 12

광주 버스터즈 0 0 3 0 6 0 - 9

△승리투수:김광호

▲2경기(4회 콜드승)

무등산생태요양병원 12 2 2 0 - 16

타요 바리스타즈 0 0 0 0 - 0

△승리투수:김종원

▲3경기

금호 허리케인 3 0 8 0 0 - 11

첨단고은미래의원 페가수스 0 0 2 0 2 - 4

△승리투수:이정현 △홍현:강진혁(3회 1

점·금호 허리케인)

▲4경기(4회 콜드승)

청연 콜가이스 4 1 0 0 - 5

패밀리 3 4 1 2 X - 19

△승리투수:김형선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가 시작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3일 광주일고야구장에서 개막했다.

무등리그 16강전으로 치러진 개막 첫날 경기에서는 로즈스나이퍼스, 무등산생태요양병원, 금호허리케인, 패밀리가 승자가 됐다. 특히 금호허리케인은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눈길을 끌었던 첨단고은미래의원 페가수스와의 경기에서 11-4로 승리하며, 무등기 탈환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이번 대회 첫 경기는 로즈스나이퍼스와 광주 버스터즈가 장식했다. 1회 3점을 뽑은 로즈스나이퍼스가 2회 8점을 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11-3으로 앞서 5회초 1점을 보낸 로즈스나이퍼스는 5회말 6실점을 했지만 12-9, 시간제한승으로 대회 첫 승리팀이 됐다.

2015년 우승팀에 빛나는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타요바리스타즈를 16-0, 4회 콜드승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가 3일 오전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 야구장에서 개막했다. 무등토너먼트 로즈스나이퍼스와 광주버스터즈의 경기에서 버스터즈 공격때인 4회말 10루 김영권 타석 때 2루주자 최성일이 판단 착오로 주루사 당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으로 제압하고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1회부터 12점을 몰아내며 심하지 않은 출발을 한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2회와 3회에 2점씩 보며 일찍 경기를 마무리했다. 금호허리케인은 1회부터 3점을 만들며

첨단고은미래의원 페가수스를 압박했다. 3회 강진혁의 솔로포를 더해 대거 8점을 만든 금호허리케인은 11-4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패밀리의 화력도 매서웠다. 청연콜가이스와 1회부터 4점과 3점을 주고받은 패밀리가 3-5로 뒤진 2회말 7-5 역전에 성공했다. 패밀리는 3회에는 12점을 몰아내면서 19-5, 4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주)아로마라이프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동참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트볼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주)아로마라이프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동참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9회 7실점...KIA 마운드 또 참사

한승혁·4일만의 등판 심동섭 등 4명 투입...투수 운용 문제점 노출

8이닝 1실점 헥터 18승 무산... 이명기 9회 수비하다 부상 '상처만'



비정상의 마운드에 '호랑이 군단'의 6연승이 좌절됐다.

KIA 타이거즈가 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7-8, 끝내기패를 당했다. 9회 4명의 투수를 기용하고도 6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처참한 패배다.

8회까지는 KIA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헥터가 2회 1사에서 고종욱을 2루타로 출루시킨 뒤 잠시 흔들렸지만 1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후 헥터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됐다. 3회부터 8회까지 헥터가 내보낸 주자는 단 두 명. 4회 선두타자 고종욱에게 중전안타를 맞았지만 병살타로 2루를 허용하지 않았고, 7회 2사에서는 채태인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1루수 서동욱의 좋은 수비로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헥터가 8이닝 5피안타 2볼넷 6탈삼진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자 타자들도 응답했다.

1회초 이명기가 투수 내야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와 상대 실책으로 3루까지 향했고, 버나디나의 적시타로 선취득점을 만들었다. 다리 통증으로 빠진 최형우를 대신해 4번타자로 나선 나지완은 좌중간 2루타로 타점을 올렸다.

4회 1사 1·2루에서 대타 김주찬으로 1점을 보낸 KIA는 김선빈과 버나디나의 연속 안타 그리고 이병호의 투런을 보태 6-1까지 앞서갔다. 이후 KIA는 9회초 나온 안지훈의 적시타로 7-1에서 마지막 수비에 들어갔다.

107개의 공을 던진 헥터에 이어 한승혁이 KIA의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다.

하지만 지난 8월 27일 이후 1주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한승혁이 김하성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가 시작됐다. 이어 장영석의 펜스 맞는 큰 타구가 나오면서 무사 2·3루가 됐다. 설상가상 펜스수비를 하던 좌익수 이명기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고종욱의 1루수 땅볼로 간신히 원아웃

을 잡았지만 그사이 3루에 있던 김하성이 홈을 밟았다. 이어 이택근의 타구 때 우익수 신종길의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장영석도 홈에 들어왔다.

오랜만에 등판한 한승혁이 제 몫을 못하면서 자초한 위기, 벤치가 차중수를 뒀다.

한승혁을 강판하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이대진 투수 코치가 호출한 이는 좌완 심동섭이었다. 지난 8월 30일 삼성전 선발로 나서 85구를 던져 승리투수가 됐던 심동섭은 4일 만에 다시 등판했다. 여기에 김기태 감독이 심동섭을 다음 주 LG전 선발로 예고했던 상황이었지만 만큼 심동섭의 등장은 비극의 복선 같았다.

심동섭은 연속 볼넷으로 진땀을 흘렸다. 이정후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한숨을 돌리는 것 같았지만 서진경의 중전 안타로 2실점을 한 뒤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투구수는 23개.

이어 사이드업 박진태가 급히 마운드에 올랐지만 다시 볼넷. 2사 만루에서 김진우가 등판했지만 결과는 역시 내기 볼넷이었다. 그리고 장영석의 끝내기 안타로 헥터의 18승과 팀의 6연승이 날아갔다.

올 시즌 KIA는 1위 독주를 하면서도 마운드 구성과 운용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선수들의 더딘 성장세와 벤치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더해지면서 마운드 참사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선발투수를 실전 경기에서 불펜 요원으로 투입하는 방식도 역효과만 부르고 있다. 지난 시즌 선발과 불펜을 원칙 없이 오가던 홍건희가 가슴 근육 부상으로 빠진 적이 있고, 올 시즌에는 임기준이 홍건희와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역시 근육 부상으로 빠졌다. 이런 변칙 운영 속에 불펜진은 극과 극으로 가고 있다. 특정 선수들의 과부하 조짐 속, 부진 만화의 기회를 얻지 못하며 후퇴하는 이들이 겹겹이 밀려나 마운드 약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예상됐던 임기준과 정용운의 공백과 부진에도 대처하지 못하면서 선발·불펜 경계 없는 비정상의 마운드가 정선없이 돌아 가고 있다.

빨리 1위로 굳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1위 팀 다음 계산이 서는 마운드다. 이는 진정한 1위와 가을 잔치 그리고 왕조 재건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선행 과제다. KIA 팬들이 1위 팀 질주를 보며 느끼는 갈증의 원인으로 여겨 있다. 경계 없는 마운드는 부상과 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다른 마운드 참사를 부를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클래식 잔류 '가시밭길'

수적 우위에도 제주에 0-1 패...5연패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광주 FC 선수들은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캡틴' 송승민은 "우리팀 어떻게 하느냐. 눈물이 날 것 같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지난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김학범호의 두 번째 경기 역시 0-1패였다.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 속에 경기를 했지만 승점을 더하는 데 실패한 광주는 5연패에 빠졌고, 이날 경기의 상대였던 제주 유나이티드는 2위로 뛰어 올랐다.

11위 상주 상무도 6점 차 밖에 머물면서 광주의 잔류 도전 무대는 가시밭길이 됐다.

광주와 제주는 경기 시작과 함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세게 상대를 몰아붙였다. 제주의 강공에 잘 맞았던 광주는 코너리 상황에서 실점했다. 권순형과 오반석으로 이어진 공세에 헤딩골을 내주며 제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후반 4분 광주에 호재가 찾아왔다. 제주 미드필더 이창민이 여봉훈과 경합 과정에서 이미 공이 떠난 뒤 발을 밟는 장면이 나왔다. 비디오 판정결과 이창민의

퇴장이 선언되면서 경기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후반 시작과 함께 김민혁을 대신해 완델손을 투입했던 김학범 감독은 '퇴장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 공격 강화에 나섰다.

후반 10분 측면 수비수 이민기를 대신해 공격수 나상호를 투입했고, 후반 18분에는 '명품 킥'의 베테랑 이종민을 넣어 공격에 세밀함을 더했다. 그러나 광주는 마지막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0-1, 패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6일 지휘봉을 잡은 뒤 홈대 뷔전을 치른 김학범 감독은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다. 홈팬들에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실점을 한 코너리 상황 외에는 상대의 특별한 플레이가 없었다. 우리 선수들이 상대 분석을 잘 했는데, 우리 플레이가 안 됐다. (퇴장 변수가 있어서) 공격수들을 투입했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우리가 골을 넣어야 했다"고 이날 경기를 돌아봤다.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다. 많은 경기 남아있다. 선수들이 몸쳐서 해내야 한다. 우리가 해내야 한다. 다음 (인천과의)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준비 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10일 오후 6시 인천전용 구장에서 10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결을 한다. /김여울기자 wool@

한국 축구 후퇴냐 전진이냐...우즈베크전에 달렸다

내일 자정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승리패 조2위로 자력 본선 진출...황희찬 원톱



한국 축구 향후 4년의 운명을 좌우할 우즈베크스탄과의 '단두대 매치'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5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우즈베크스탄의 타슈켄트 분요드르스타디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최종전인 우즈베크스탄과 경기를 치른다.

현재 대표팀은 4승 2무 3패(승점 14)를 기록해 본선 진출을 확정할 이란(승점 21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3위는 시리아, 4위

는 우즈베크스탄(이상 승점 12)이다.

대표팀은 우즈베크스탄전에서 승리하면 조 2위를 확정해 본선에 진출하지만, 비길 경우 시리아와 이란의 경기 결과에 따라 3위로 추락해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우즈베크전서 패하면 한국 축구엔 사실상 '재앙'

현재 대표팀은 골 득실 +1점으로 시리아와 동률이다. 대표팀이 우즈베크스탄과 비기면 골 득실은 계속 +1이 되는데, 시리아가 이란에 승리하면 최소 +2가 돼 순위가 뒤집힌다. 대표팀은 우즈베크스탄에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목표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만약 대표팀이 우즈베크스탄에 지면 최소 3위, 최악의 경우 4위를 기록해 탈락한다. 3위에 오를 경우 B조 3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고, 플레이오프를 승리하더라도 중남미 팀과 다시 한번 싸워야 한다.

본선 탈락은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만약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할 경우 월드컵 본선 연속 진출 기록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맺고 있는 상당한 스폰서와 후원사, 광고사들이 계약금을 출일 가능성이 크다. 협회가 재정에 타격을 받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초·중·고 풀뿌리 축구도 흔들리게 된다. 월드컵이 가져다주는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사라진다.

◇황희찬-손흥민, 너희 발에 한국 축구 운명이 달렸다.

신태용 감독은 일단 무릎 통증을 안고 있는 황희찬(잘츠부르크)에게 다시 한 번

원톱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크스탄은 체력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 몸싸움이 능한 황희찬이 앞선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한다.

2선에서도 에이스인 손흥민(토트넘)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동국(전북)은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후반 초반 조커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포백 라인'이다.

오른쪽 풀백은 경고 누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최철순(전북) 대신 고요한(서울)이 나선다. 왼쪽 풀백은 무릎 통증을 안고 있는 김진수(전북) 대신 김민우(수원)의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김민우는 공격수 출신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김진수보다 크다. 공격 부담 능력이 뛰어난 김민우가 왼쪽 풀백으로 출전할 경우, 공격 라인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주장 김영권(상하이)에게 다시 한 번 센터백을 맡길지는 미지수다. 김영권은 '실연 논란'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연합뉴스

캡틴, 우즈베크전 부르고 싶다

박지성, 맨유 레전드 매치 풀타임 1도움

박지성(36)이 자신이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매치에 두 번째 출전해 풀타임으로 활약했다.

박지성은 3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와의 레전드 매치 2차전에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2-2 무승부에 힘을 보탤었다.

박지성은 지난 7월 1일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1차전 때도 풀타임 활약하며 도움 1개를 기록해 3-1 승리에 앞장섰다. 맨유는 1, 2차전 합계 5-3으로 바르셀로나를 압도했다.

선재골은 맨유의 뒤통이었다. 전반 11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맨유의 키커로 나선

윌트 판 니스텔로이가 침착하게 골을 넣었다.

박지성은 왼쪽 측면에서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활력을 불어넣었고, 맨유는 사하 대신 교체 투입된 웨버가 전반 42분 추가골을 넣으며 바르셀로나에 2-0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바르셀로나가 거센 반격에 나섰다.

후반 33분 가르시아가 맨유의 골망을 흔들었고, 3분 뒤 멘디에타가 다비즈의 패스를 받아 동점골까지 넣었다.

2-2 균형을 허용한 맨유는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고, 1차전 3-1 승리를 발판 삼아 레전드 매치에서 승리했다.

/연합뉴스